

프랑스의 역사 연구와 개념사

고 원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 **논문분야** 서양사, 서양사상, 사학사

■ **주제어** 개념사, 담론 분석, 프랑스 역사학, 구조주의, 실증주의

■ 요약문

프랑스 역사가들은 개념사에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 역사가들 스스로가 “프랑스에는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개념사 연구의 조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도로 프랑스 역사학은 개념사에 무관심했다. 왜 프랑스 역사가들은 개념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언뜻 보기에 프랑스 역사학은 개념사가 발전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사, 비사건사 등 독일 개념사의 주요한 이론적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개념사의 이론적 토대 가운데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역사적 연구에 대한 문제 설정이 프랑스 역사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확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구조주의의 영향 때문이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프랑스에서는 역사학과 구조주의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생겨난 프랑스 역사학의 실증주의적 특성은 해석학적 전통에 기반하는 개념사가 들어설 여지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고, 언어의 역사적 연구에 대한 요구는 실증주의적 담론 분석으로 해소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역사학은 실증주의적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치사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개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작업에 개념사 연구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들의 연구는 독일의 개념사와는 다른 문제설정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상이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아주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1. 머리말

1970년대 초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오토 브루너(Otto Brunner), 베르너 콘체(Werner Conze)가 편집한 『역사의 기본개념 사전』이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개념사(Conceptual History, Begriffsgeschichte)는 곧바로 여러 나라 많은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유독 프랑스 역사가들만은 이 새로운 역사 연구에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날 3세대 역사가를 대표하는 앙드레 뷔르기에르(André Burguière)가 책임편집을 맡아 1986년에 출간한 『역사학 사전』에서도 개념사 항목은 빠져 있었다.¹⁾ 독일 개념사를 주도한 코젤렉의 대표 저작 『지나간 미래』(1979)가 불어로 번역된 것은 1990년에 이르러서였다. 프랑수아 푸레(François Furet)가 프랑스 혁명에 관한 몇몇 저작들에서 다소 산만한 방식으로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했던 적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념사는 프랑스 역사가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²⁾ 프랑스 역사가들 스스로가 “프랑스에는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개념사 연구의 조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도로 프랑스 역사학은 개념사에 무관심했다.³⁾

물론 코젤렉의 명성은 프랑스 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역사가들 보다는 해석학에 관심을 가진 철학자들 사이에서 더 유명했다. 그렇다고 철학자들이 개념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젤렉을 프랑스에 적극적으로 소개한 폴 리코어(Paul Ricoeur)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철학자들의 관심은 개념사가 아니라 코젤렉이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었다.⁴⁾

왜 프랑스 역사가들은 개념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언뜻 보기에 프랑스 역사학은 개념사가 발전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사, 비사건사 등 독일 개념사의 주요한 이론적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개념사의 이론적 토대 가운데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역사적 연구에 대한 문제 설정이 프랑스 역사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확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구조주의의 영향 때문이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프랑스에서는 역사학과 구조주의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생겨난 프랑스 역사학의 실증주의적 특성은 해석학적 전통에 기반하는 개념사가 들어설 여지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고, 언어의 역사적 연구에 대한 요구는 실증주의적 담론 분석으로 해소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역사학은 실증주의적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치사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개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작업에 개념사 연구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들의 연구는 독일의 개념사와는 다른 문제설정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상이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아주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이 글은 1930년대 프랑스에서 언어의 역사적 분석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된 이후 실증주의의 시대를 거쳐 개념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 도달하는 긴 여정을 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페브르와 언어의 역사적 분석

개념사의 역사를 서술하는 이들은 흔히 아날 역사학의 창시자인 뒤시앵

1) Burguière, André(1986), *Le Dictionnaire des sciences historiques*, PUF 참조.

2) Furet, François(1978), *Penser la Révolution française*, Gallimard; id. (ed.)(1986), *Marx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Flammarion 참조.

3) Guilhaumou, Jacques(2000), “De l’histoire des concepts à l’histoire linguistique des usages conceptuels,” *Genèses*, n.38, p. 112.

4) Ricoeur, Paul(1986), *Temps et récit III: Le temps raconté*, Seuil, pp. 302~303 참조.

페브르(Lucien Febvre)를 개념사 연구의 선구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한다.⁵⁾ 그러나 페브르가 언어의 역사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개념사의 선구자라고 규정한다면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페브르는 1930년에 발표된 문명의 시대적 의미 변천에 대한 연구에서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문명이라는 용어의 의미 변화가 18세기 후반 이래로 프랑스에서 발생한 혁명들의 가장 심층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었다. 또한 페브르는 용어의 시대적 의미 변화에 대한 고찰이 문화사 연구의 방법론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⁶⁾ 여기서 페브르가 역사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보았던 것은 개념이 아니라 각 시대 속에서 사용되는 일상용어였다. 페브르는 훗날 학자들이 담론 분석이라고 부르게 될 일상용어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했던 것이다. 일상용어의 역사에 대한 페브르의 본격적인 연구는 1942년에 출간된 『16세기 무신앙의 문제, 라블레의 종교』를 통해 구현된다. 16세기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라블레(François Rabelais)는 프랑스 인문학자들의 단골 연구 주제였다. 특히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비신앙적인 모습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라블레는 과연 무신론자였는가? 페브르는 16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무신앙의 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먼저 라블레와 동시대인들의 증언과 시대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무신론자’라는 용어의 16세기적 의미를 살펴본다. 당시 라블레는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무신론자라는 말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일종의 욕설에 불과했다. 따라서 페브르는 오늘날

5) 예컨대 Veit-Brause, Irmline(1981), "A Note on Begriffsgeschichte," *History and Theory* 20, p. 63.
6) Febvre, Lucien(1930), "Civilisation: Evolution d'un mot et d'un groupe d'idées," *Première semaine internationale de synthèse* II, Macek, J.(1973), "Pour une sémantique historique," *Mélanges en l'honneur de Fernand Braudel* II, p. 343에서 재인용.

의 의미에서 무신론자라는 용어를 16세기의 라블레에게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지적한다. 시대 환경에 대한 고찰 없이 라블레의 작품만 가지고 그를 합리주의자, 자유사상가로 보는 것은 20세기의 관점으로 16세기의 작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당시의 다른 종교개혁기들에 비교하면 라블레는 온건한 편이었다고 페브르는 이야기한다.

페브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6세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라블레가 무신론자가 될 수 있었을까"를 질문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페브르는 16세기의 심성적 도구들(outillages mentals)을 분석한다.

각각의 문명은 자기의 심성적 도구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동일한 문명의 각 시대마다, 기술적이든 과학적이든 문명 자체를 특징짓는 각각의 진보마다 어떠한 용도에서는 조금 더 발달되고 어떠한 용도에서는 조금 덜 발달된, 새로워진 도구가 있다. 이 문명과 이 시대가 다음에 오는 문명의 시대에 온전하게 전달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심성적 도구, 그것은 손상, 역류, 중대한 변형 등을 겪을 수도 있다. 또는 정반대로 진보, 풍요화, 새로운 복잡화 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그것을 만들 줄 알았던 문명에게 유효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시대에 유효하다,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지도 않으며, 온 인류에게 유효한 것도 아니다.⁷⁾

라블레가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대신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로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심성적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16세기의 라블레는 이러한 심성적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까?

7) 뤼시앵 페브르(1942), 『16세기 무신앙의 문제: 라블레의 종교』, 김응중 역, 문화과지성사, 199쪽 (Febvre, Lucien, 1942, *Le problème de l'incroyance au XVIe siècle. La religion de Rabelais*, Albin Michel)

페브르에 따르면 16세기의 심성적 도구들, 즉 철학, 과학, 수학, 문학 등은 17세기 데카르트와 더불어 뒤늦게 등장하게 될 논리적 사고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당시 사람들의 사상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휘의 부족, 구문의 한계로 인하여 견고성이나 명증성을 가질 수 없었다. 16세기에는 수학적 논증 방식의 엄격함, 계산 방식의 정확성, 증명 방식의 우아함 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조건은 무신론의 토대가 되는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철학의 등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종교는 개인과 집단생활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었으며, 비종교적인 사고가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라블레는 16세기의 뛰어난 지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페브르의 결론이었다. 자신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토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개인은 자기 시대와 사회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페브르의 역사관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⁸⁾

페브르의 연구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그다지 좋은 평을 얻지 못했다. 심지어 아날 내부에서도 혹평이 제기되었는데, 아날의 지적 스승이었던 앙리 베르(Henri Berr)나 절친한 동료인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까지도 페브르가 “지적 엘리트의 창조적인 역할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약 20년 후 프랑스 역사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가져온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각 시대별 에피스테메(épistémè)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페브르의 문제제기에 응답하고, 그 성과에 매료된 프랑스 역사가들은 담론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 뛰어들게 된다.

8) Febvre, Lucien(1938), “Une vue d'ensemble. Histoire et psychologie,” *Combats pour l'histoire*, Armand Colin, p. 211.

9) 페브르의 저서에 대한 여러 비판은 김응중(1991), 『아날학파』, 민음사, 57~59쪽 참조.

3. 실증주의적 담론 분석

물론 페브르의 연구는 이후 프랑스 역사학이 견게 될 긴 여정의 출발점이었을 뿐이다. 그의 작업은 언어의 역사적 분석이라는 역사 연구의 새로운 길을 터주었지만, 프랑스 역사학의 전개 과정 전체를 결정짓지는 못했다. 프랑스 역사가자들에게 페브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구조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이었다.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과 그에 기반하여 등장한 구조주의 인류학은 20세기 후반 프랑스 역사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 역사가들이 개념사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구조주의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독일 개념사 역시 구조주의 언어학의 성과들을 도입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사는 해석학에 기반한 이념사의 전통에 속해 있다.¹⁰⁾ 본래 개념사는 역사가들이 아닌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연구 방법론이었다.¹¹⁾ 엄격한 의미에서 개념사라기보다는 개념철학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역사가들의 주도로 개념사는 체계적인 이론을 갖추고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재정립된다. 역사가들의 개념사 연구를 주도한 코젤렉은 개념사를 사회사와 연결시키면서 기존 철학자들의 작업을 넘어서는 ‘사회사적 개념사’의 이론 체계를 제시했다. 역사가들의 개념사는 기존의 철학적 개념사가 결여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질문’에 기반하고 있다. 즉 개념과 역사적 현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의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코젤렉에 따르면 개념은 역사적 현

10) 1960년대 이후 독일 개념사를 이끈 코젤렉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뢰비트와 가다머로부터 역사철학과 해석학을 배웠으며, 하이데거를 사숙했다.

11) 개념사의 연원에 대해서는 이상신, 1986, 「개념사의 이론과 연구 실제」, 『역사학보』 110, 225~230쪽 참조.

실들과 분리하여 사고될 수 없다. 역사적 현실의 변화는 개념의 변화에 영향을 주며, 또한 개념의 변화는 역사적 현실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물론 개념과 역사적 현실의 변화는 시간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변증법적 지양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립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념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개념과 역사적 현실 사이의 복잡하게 얽혀진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개념과 역사적 현실을 엮는 것은 바로 언어이기 때문이다. 코젤렉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언어는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져 있고, 모든 역사는 언어적으로 조건 지워져 있다.”¹²⁾

이처럼 개념사는 프랑스 역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역사적 분석이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다. 방대한 규모의 『역사의 기본개념 사전』을 통해 코젤렉이 실제로 보여 준 개념사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몇몇 선택적 항목들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접근 방식 또한 개념들의 장기적인 전개 과정에만 집중할 뿐 그 개념의 언어적 맥락 및 사회적 맥락은 소홀히 함으로써 공시성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¹³⁾ 이처럼 개념사는 이념사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이념사와의 단절을 강조하는 프랑스 구조주의 역사가들의 흥미를 끌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12) Richter, Melvin(1994), “Begriffsgeschichte in Theory and Practice: Reconstructing the History of Political Concepts and Language,” in Melching, W. & W. Velema (eds.), *Main Trends in Cultural History*, Amsterdam/Atlanta, p. 137.

13) 코젤렉의 개념사에 대한 비판은 Sheehan, James(1978), “Begriffsgeschichte: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Moderne History*, vol.50 참조.

프랑스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언어학을 매개로 역사학과 구조주의의 결합이 추진되고 있었다. 1958년 프랑스 구조주의의 선구자 가운데 하나인 알지르다스-쥘리앵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는 『아날』에 「역사학과 언어학」이라는 논문을 기고한다. 이 논문에서 그레마스는 훗날 푸코, 레진 로뱅(Régine Robin), 미셸 페쇠(Michel Pêcheux), 프랑수아즈 가데(Françoise Gadet) 등이 작업하게 될 언어학적 기반을 가지는 역사적 담론 분석 프로그램의 원형을 최초로 제시한다.

언어학은 사회학적 태도와 어구에 대한 설명을 사실들의 원자주의와 연구자들의 심리주의에 대립시킨다. 언어는 기호들의 전체적 체계이며, 그것은 문화에 스며들고 문화로 하여금 표현되도록 한다. 언어는 단어들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상징적 체계로서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이다. 그것은 독자적인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여, 개인들 저편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느낌과 행동의 양식을 강요한다. 구조화된 전체 속에서 조직된 단어들, 어휘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되며,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언어의 지평을 형성한다. 이러한 언어의 지평 속에서 역사학자들은 망탈리테(mentalité)의 구조와 집단적 감성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의 수준에서 사회적 역할이 나뉘지고 감정의 모델과 망탈리테의 규칙에 맞는 사회적 틀이 발생한다. 따라서 언어학은 전통적인 역사에 대한 표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문화사를 서술하기 위한 통합되고 잘 짜여진 계획과 함께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⁴⁾

다시 말해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개인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로서 분석되어야 할 구체적 대상이라는 것

14) Greimas, Algirdas-Julien(1958), “Histoire et linguistique,” *Annales E.S.C.*, vol.13, p. 112.

이 그레마스의 주장이었다. 그의 주장은 페브르가 제기했던 언어의 역사적 분석이라는 문제 설정의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구조주의적인 색채가 훨씬 더 강화된 것이었다. 이제 역사 연구의 주요 대상은 구조, 모델, 규칙 등이 될 것이며, 역사학은 자연과학에 버금가는 실증주의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역사학과 구조주의의 결합을 실제로 구현한 인물은 푸코였다. 푸코는 담론이라는 개념에 특별한 인식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를 매개로 역사학과 구조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었다. 푸코에게 담론이란 물질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언어학적 기호 너머에 감추어져 있어 해석학적으로 간파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면서 인간들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말하기/글쓰기의 제도화된 양식이다.

나는 담론 아래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담론을 그것의 분명한 존재 속에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실천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이것은 생성, 존재, 공존 혹은 기능 양식의 체계 등과 같은 규칙들이다.¹⁵⁾

각 시대 속에서 담론이 기능하는 규칙과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추적하는 푸코의 1960년대 저작들은 프랑스 역사가들을 매혹시켰다. 특히 아날의 역사가들은 푸코의 작업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추구해 온 의식/무의식의 역사를 완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역사적 텍스트의 객관적 독해라는 랑케 이래 역사가들의 오랜 소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푸코의 작업이 역사가들이 생각하던 바로 그것이었는지는 논란의

15) Foucault, Michel(1969), "Interview par J. J. Brochier," *Magazine Littéraire*, n.29, p. 23.

여지가 많다.¹⁶⁾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푸코의 작업이 1960년대와 70년대 프랑스 역사학의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푸코 이후 프랑스 역사학은 담론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된다.

이 분야의 선구적 인물로는 로뱅을 들 수 있다. 그녀는 1969년에 제출한 『1789년의 프랑스 사회: 스미르-앙-오주아 지역』에 관한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계량어의학적(lexicometric) 방법과 기호학적(semiotic) 방법을 사용하여 1789년 국민의회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진정서(cahiers de doléance)에 나타난 어휘들을 분석한다.¹⁷⁾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녀는 전통적인 문헌해석학적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 혹은 부르주아와 인민계급 간의 숨겨지고 은폐된 적대감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었다. 담론 분석의 일반적인 방법은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단어, 개념, 은유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단어들이 어디서, 언제, 얼마만큼 자주 등장하는지, 그리고 이 단어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상보성, 대립 혹은 대체)는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의미론적 장의 개요를 그리는 것이 담론 분석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한정된 몇몇 주요 텍스트들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에 집중하는 개념사와는 다르게 담론 분석은 신문, 잡지, 전단, 자서전, 일기, 재판 기록 등 일상의 문서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자크 기요무(Jacques Guilhaumou)는 프랑스 혁명 시기 급진파인 에베르 지지자들의 신문, 『페르 뒤센(Père Duchesne)』의 기사들에 대한 담론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¹⁸⁾ 기요무의 작업은 이 신문이 상퀼로트의 대변지가 아니라 오히려 통속화된 자코뱅 이데올

16) 푸코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오해에 대해서는 Perrot, Michelle(1978), *L'Impossible prison*, Seuil 참조.

17) Robin, Régine(1970), *La société française en 1789: Semur-en-Auxois*, Plon. 이 책은 그녀의 1969년 디종대학 박사학위(IIIème cycle) 청구 논문이다.

18) Guilhaumou, Jacques(1973), "L'idéologie du <Père Duchesne>: Les forces adjuvantes(14 Juillet-6 Septembre)," *Mouvement sociale*, n.85, pp. 81~116.

로기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담론 분석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에까지 연결된다. 한 시대 언어의 어법과 정형은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저장고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한 물질적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연구자들을 사회의 심층 구조로서 존재하는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생산양식'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게 만들었다.¹⁹⁾ 구체적으로 그들은 담론 분석을 통해 표면적이고, 경험적인 변이들의 조합적 계열 내에서 그것들의 불변적 구조의 흔적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 효과들의 계열에 현존하는 구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담론 분석은 역사학을 언어학에 근접한 형태로 변모시켰고, 그 결과 전문 역사가들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읽기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역사 서술방식을 등장시켰다. 무엇보다 담론 분석은 1970년대 망탈리테의 역사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제까지 망탈리테 연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과거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 감정, 습성 등에 어떻게 비주관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담론 분석은 수치와 통계가 역사 자료의 객관적인 독해를 보증한다는 생각을 확산시켰고, 그에 따라 망탈리테 역사가들도 자신들의 연구에 '과학적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²⁰⁾ 과학을 상징하는 수치와 통계로 무장한 망탈리테사는 역사 연구의

19) 당시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Pêcheux, Michel(1983), "Ideology: Fortress or Paradoxical Space" in Hanninen, Sakari and Leena Paldan (eds.), *Rethinking Ideology: A Marxist Debate*, Argument-Verlag; id. with Françoise Gadet(1983), "La langue introuvable,"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winter/spring 참조.

20) "미래의 역사가는 프로그래머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는 엠마뉴엘 르 루아 라뒤리의 단언은 1970년대 프랑스 역사가들의 실증주의적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당시 프랑스 역사학의 실증주의적 모습에 대해서는 Dosse, François(1987), *L'histoire en miettes: Des <Annales> à la <Nouvelle histoire>*, La Découverte, pp. 178-192 참조.

새로운 개척 분야로 각광받게 된다. 담론 분석은 그 자체로도 역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1970년대 프랑스에서 망탈리테 연구의 확산을 가져오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다.

4. 개념사로의 회귀

1970년대가 지나고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좀 더 차분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작업들의 성과를 결산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수많은 혁신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여 수행된 담론 분석의 연구들은 애초의 기대만큼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역사가들이 담론 분석을 통해 얻은 성과라고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좀 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재증명한 것밖에는 없었다.

우리는 기껏해야 역사 지식이 이미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인했던 것을 우리들의 목록과 등급에 기초해서 '증명'할 수 있었을 뿐이다.²¹⁾

더욱이 담론 분석은 좀 더 '평범한' 연구방법을 사용했다라면 피할 수 있었던 예기치 않은 난국까지도 가져왔다. 그것은 바로 실증주의의 확산이었다. 구조주의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실증주의가 담론 분석을 통해 역사 연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1970년대 프랑스 역사학이 보여 주는 실증주의의 모습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과학적인' 수치와 통계가

21) Robin, Régine(1986), "L'analyse du Discours entre la linguistique et les sciences humaines: L'éternel malentendu," *Langages*, n.81, p. 126.

역사의 진실을 보증한다는 계량주의에서부터 지배 이데올로기적의 재생산 메커니즘 분석에 몰두하면서 구조의 동질적 불변항을 구축하고 있는 구조주의적 담론 분석에 이르기까지 실증주의는 여러 모습들로 존재하지만, 이들은 모두 역사가와 그가 연구하는 역사적 시간을 철저히 분리시켜 사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리를 보증하는 것은 바로 ‘과학’이다.

그렇지만 역사가가 자신의 연구대상과 분리되어 객관적인 관찰자로 순수하게 남아 있는 것이 가능할까? 과거와 현재는 명백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 초창기 아날의 역사학을 이끌었던 페브르나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역사가가 자신이 연구하는 역사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재는 과거의 시간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 역시 이러한 시간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역사학이 실증주의의 문턱을 넘어서던 1971년에 폴 벤느(Paul Veyne)는 “역사학은 과학이 아니며 과학으로부터 대단하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당시의 연구 흐름을 비판한 바 있다. 벤느에 따르면 “역사가들은 인간이 그 주역을 맡고 있는 실제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역사란 사실로 구성되는 소설”이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²²⁾ 물론 벤느의 비판은 1970년대 초의 역사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과격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된다. 벤느가 제기했던 문제설정의 연장선 위에서 리코르는 해석학적 역사이론의 복원을 시도한다.²³⁾ 코젤렉의 역사사상이 프랑스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담론 분석의 흐름을 주도하던 역사가들 내에서

도 반성과 함께 연구의 새로운 지향점이 제시된다. 페슈는 1960년대와 70년대 담론 분석의 연구 경향을 회고하며, 자신들이 ‘과학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비판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도피’를 꿈꾸는,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분리를 통해 역사적-정치적 현실 자체를 통제하려는 프랑수아적인 방식이었다”. 중요한 것은 “의미론적-화용론적 보편자들의 불가능한 이론, 즉 우리 시대의 지평 위에 새로운 지배의 꿈처럼 떠도는 어떤 이론의 야심과의 싸움”이다.²⁴⁾ 이들은 68년 5월 혁명 이후의 푸코에게 주목한다. 1960년대의 ‘고고학’에서 70년대의 ‘계보학’으로 푸코에 대한 관심이 옮겨 간 것이다. 계보학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의 역사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계보학은 현재의 시간을 만들어 낸 역사 상황들을 추적한다. 그것은 니체가 말한 ‘진정한 역사’이다. 고고학이 담론의 형성과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지층을 기술한다면, 계보학은 그 지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힘들(forces) 간의 권력관계를 탐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힘들의 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계보학을 통한 푸코의 의도는 실증적인 역사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간 속의 권력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²⁵⁾

이제 프랑스에서 개념사가 등장할 여건들이 모두 갖추어졌다. 그리고 곧 개념사의 방법론을 적용한 작업들이 정치사상 분야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왜 하필 정치사상 분야였을까?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이념사 연구에 익숙했고, 따라서 개념사를 받아들이는 데에 대체로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역사가들은 실증주의 역사학의 급격한 몰락이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22) 폴 벤느(1971),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이상길·김현경 역, 새물결, 14~15쪽, 21쪽(Veyne, Paul, 1971, *Comment on écrit l'histoire*, Seuil.)

23) 그 대표적인 시도가 『시간과 이야기』(1986)이다. 리코르는 이 저서에서 앙리 마루에서 레이몽 아롱, 폴 벤느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해석학적 역사이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24) Pêcheux, Michel with Françoise Gadet(1983), “La langue introuvable,”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winter/spring, pp. 26~28.

25) 계보학과 현재의 역사에 관한 푸코 자신의 설명은 Foucault, Michel(1971), “Nietzsche, la généalogie, l'histoire,” *Hommage à Jean Hyppolite*, PUF 참조.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념의 역사를 고찰한 인상적인 작업으로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의 마르크스 사상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속에서 계급 개념의 전개 과정, 이데올로기 개념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들을 통해 독일 개념사와 구별되는 ‘프랑스식’ 개념사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리바르가 진행한 마르크스주의 개념사 연구의 주요한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개념을 구조가 아닌 정세(conjoncture)와 연결지어 고찰한다는 점이다. 발리바르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이데올로기의 동요」를 통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개념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다.²⁶⁾ 발리바르는 이데올로기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1845~1846년의 시기, 다소 주변적, 우연적으로 언급되는 1847~1852년의 시기, 이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20년간의 시기, 다시 활발하게 사용되는 1870년대 이후의 시기들을 구분한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용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변화는 마르크스주의가 처한 역사적, 정치적 정세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이를 바꾸어 말하면 개념의 의미는 정세의 변화 속에서 끊임 없이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구조보다 정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역사적 시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힘들(forces) 간의 갈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개념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개념의 의미를 둘러싸고 다양한 힘들이 다툼을 벌이며, 이 힘들 간의 갈등과 대립, 충돌을 통해 개념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마르크스에게

26) Balibar, Etienne(1983), “The Vacillation of ideology,” in Nelson, Cary and Lawrence Grossberg (eds.)(1988), *Marxism and Interpretation of Culture*,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이 외에 발리바르의 마르크스주의 개념사 연구로는 id.(1982), “Classes,” in Labica, Georges et Gérard Bensussan (eds.), *Dictionnaire critique du marxisme*, PUF; id.(1984), “L’idée d’une politique de classe chez Marx,” *Les temps moderne*, n.451; id.(1993), *La philosophie de Marx*, La Découvert 등이 있다.

이데올로기의 개념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과학과 정치, 이론과 실천을 표상하는 현실적인 힘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영속적으로 동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셋째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진보가 아닌 진화의 형태를 그린다. 다시 말해, ‘개념화-탈개념화-재개념화’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질 들뢰즈가 이야기하는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 혹은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브로델이 언급했던 ‘구조화-탈구조화-재구조화’의 과정과 같은 것이다.²⁷⁾ 진보가 아니라 진화가 강조되는 것은 개념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선형적인 역사철학에 기대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의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발리바르의 연구는 과거에 대한 순수하게 객관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현재 시간 속의 권력관계에 직접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연구자는 현재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연구자의 연구 또한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모든 역사 연구는 현재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페브르와 그에 충실했던 브로델처럼 발리바르 역시 문제사(histoire-problème)의 전통에서 있다.²⁸⁾ 문제사의 문제 설정은 브로델과 푸코 그리고 발리바르에게서 현재 시간의 역사로 구현된다. 현재 시간의 역사는 단지 연구의 대상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현재 시간의 역사학은 현재를 역사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를 역사화시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를

27) 들뢰즈의 개념과 브로델의 개념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Deleuze, Gilles et Felix Guattari (1991), *Qu’est-ce que la philosophie?*, Minuit, pp. 82~108 참조.

28) 페브르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역사학의 시작이요 끝이다. 문제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 단지 이야기, 편집물이 있을 뿐이다.” Febvre, Lucien(1952), “Vivre l’histoire,” *Combats pour l’histoire*, Ammand Colin, p.22.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도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 너무 가까이 있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효과는 현재를 구성하는 시간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더욱 커진다. 구조화되면서 탈역사화된 현재를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면서 현재 시간의 외부를 사유하는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발리바르가 제시한 개념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 토대들을 이해하고 그 토대들의 고유한 역사를 가로치르면서 횡단의 과정 속에서 현재 시간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변화를 사유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5. 맺음말

발리바르 이후 프랑스에서는 개념사의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전후하여 프랑스 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경향의 연구들이 제시된다. 그중에서 마르셀 고셰(Marcel Gauchet)의 국민주권 개념의 연구와 플로랑스 고티에(Florence Gauthier)의 자연권 개념 연구는 프랑스에서 개념사의 방법론이 어떤 방식으로 정착되는가를 잘 보여 준다.²⁹⁾

고셰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주권 개념의 역사에 접근한다. 그는 『인권혁명』에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핵심이 국민주권이라

는 절대적 개념의 위치 설정이며, 여기서 등장하는 국민주권의 개념은 절대 왕정 시기 군주적 주권의 모방이자 더 나아가 단순 전도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펼친다. 고셰에 따르면, 제헌의회 의원들은 ‘하나이며 분할이 불가능한’ 절대군주의 주권에 맞서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들에 기초하는, 역시 하나이고 분할이 불가능한 ‘일반의지’를 대응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법적인 틀을 가지는 근대 정치의 실용적인 제도화와는 양립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국민주권의 개념은 혁명 기간 내내 직접민주주의와 혁명적 독재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프랑스 혁명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만, 그 상징적인 언술들은 혁명 이후 전개되는 사회적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갈등하는 세력들 간의 조절자적 이상의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고티에는 프랑스 혁명기에 발표된 선언들 속에서 자연권 사상에 근거하는 혁명적 이상주의 전통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그녀는 1789년의 선언이 자유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1793년의 선언은 자유의 보편적 상호성 속에 대한 승인 속에서 평등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두 선언은 연속성 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이 둘은 모두 고전적인 자연권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1795년의 선언은 소유의 불가침적인 성격과 권리/의무의 상호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선언들에 내재되어 있던 자연권 개념을 대신하여 시민성 개념이 대두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변화는 1789년 이래로 지속되어 온 혁명적 이상주의 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는 독일처럼 방대한 규모의 개념사 사전이 편찬되지는 않았다. 개념이란 주어진 정세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의되며, 다양한 힘들 간의 갈등, 대립, 충돌 속에서 지속적으로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이라는 경직된 틀 속에 영속적으로 고정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개념사 연구는 사전이라는 틀을 이용해 개념의 의미를 담아 버리기보다는 일반적인

29) Gauchet, Marcel(1989), *La Révolution des droits de l'homme*, Gallimard; Gauthier, Florence (1989), "Le droits naturel en Révolution" in Balibar, Etienne et al., *Permanences de la Révolution*, La Brèche; id.(1992), *Triomphe et mort du droit naturel en Révolution: 1789, 1795, 1802*, PUF.

역사 서술 속에 풀어 놓음으로써 개념의 의미를 개방시키고, 더 나아가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내면서 현재 시간의 권력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을 선택했다.

참고문헌

- 김응중, 1991, 『아날학파』, 민음사.
- 이상신, 1986, 「개념사의 이론과 연구 실제」, 『역사학보』.
- Balibar, Etienne(1982), “Classes,” in Labica, Georges et Gérard Bensussan (eds.), *Dictionnaire critique du marxisme*, PUF.
- Balibar, Etienne(1983), “The Vacillation of ideology,” in Nelson, Cary and Lawrence Grossberg (eds.)(1988), *Marxism and Interpretation of Culture*,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Balibar, Etienne(1984), “L'idée d'une politique de classe chez Marx,” *Les temps moderne*, n.451.
- Balibar, Etienne(1993), *La philosophie de Marx*, La Découvert.
- Burguière, André(1986), *Le dictionnaire des sciences historiques*, PUF.
- Deleuze, Gilles et Felix Guattari(1991), *Qu'est-ce que la philosophie?*, Minuit.
- Dosse, François(1987), *L'histoire en miettes: Des <Annales> à la <Nouvelle histoire>*, La Découverte.
- Febvre, Lucien(1930), “Civilisation: Evolution d'un mot et d'un groupe d'idées,” *Première semaine internationale de synthèse II*.
- Febvre, Lucien(1942), *Le problème de l'incroyance au XVIe siècle. La religion de Rabelais*, Albin Michel.
- Febvre, Lucien(1953), *Combats pour l'histoire*, Armand Colin.
- Foucault, Michel(1969), “Interview par J. J. Brochier,” *Magazine Littéraire*, n.29.
- Foucault, Michel(1971), “Nietzsche, la généalogie, l'histoire,” *Hommage à Jean Hyppolite*, PUF.
- Furet, François(1978), *Penser la Révolution française*, Gallimard.
- Furet, François, (ed.) (1986), *Marx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Flammarion.
- Gauchet, Marcel(1989), *La Révolution des droits de l'homme*, Gallimard.
- Gauthier, Florence(1989), “Le droits naturel en Révolution” in Balibar, Etienne et al.,

Permanences de la Révolution, La Brèche.

Gauthier, Florence(1992), *Triomphe et mort du droit naturel en Révolution: 1789, 1795, 1802*, PUF.

Guilhaumou, Jacques(1973), "L'ideologie du <Père Duchesne>: Les forces adjuvantes (14 Juillet-6 Septembre)," *Mouvement sociale* n.85.

Guilhaumou, Jacques(2000), "De l'histoire des concepts à l'histoire linguistique des usages conceptuels," *Genèses* n.38.

Greimas, Algirdas-Julien(1958), "Histoire et linguistique," *Annales E.S.C.*

Macek, J.(1973), "Pour une sémantique historique," *Mélanges en l'honneur de Fernand Braudel II*.

Pêcheux, Michel(1983), "Ideology: Fortress or Paradoxical Space" in Hanninen, Sakari and Leena Paldan (eds.), *Rethinking Ideology: A Marxist Debate*, Argument-Verlag.

Pêcheux, Michel with Françoise Gadet(1983), "La langue introuvable,"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winter/spring.

Perrot, Michelle(1978), *L'impossible prison*, Seuil

Robin, Régine(1970), *La société française en 1789: Semur-en-Auxois*, Plon.

Robin, Régine(1986), "L'analyse du discours entre la linguistique et les sciences humaines: L'eternel malentendu," *Langages* n.81.

Richter, Melvin(1994), "Begriffsgeschichte in Theory and Praticce: Reconstructing the History of Political Concepts and Langauge," in Melching, W. & W. Velema (eds.), *Main Trends in Cultural History*, Amsterdam/Atlanta,

Ricoeur, Paul(1986), *Temps et récit*, Seuil.

Sheehan, James(1978), "Begriffsgeschichte: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Moderne History*, vol.50.

Veit-Brause, Imline(1981), "A Note on Begriffsgeschichte," *History and Theory* 20.

Veyne, Paul, *Comment on écrit l'histoire*, Seuil, 1971.

Abstract

Historiography and Conceptual History in France

Won Ko

(Research Institute of Comparative History and Culture, Hanyang University)

■ **Key Word** : Conceptual history, Discourse analysis, French history, Structuralism, Positivism

For a long time, French historians took little or no interest in conceptual history, openly asserting: "there are not veritably currents of conceptual history in France." So, why were they indifferent to this new German historiography? France outwardly had good circumstances to ensure its adoption of such a conceptual history: important elements of this historiography, such as social history, *histoire non-événementielle*—especially the historical analysis of language—also held interest for French historians. But, they did not introduce a conceptual history, owing to the influence of structuralism. In the 1960s and '70's, French history joined the current of structuralism, an encounter which ensured the positivism of French history. In other words, a positivist history did not leave any room for the introduction of a conceptual history founded on hermeneutics. It was the analysis of discourse that appeared to reply in a positivist way to a requirement of the historical analysis of language. Subsequently, French history would awake from the illusion of positivism, in the 1980's, and it was then that it began to display an interest in conceptual history.

Nevertheless, French conceptual history differed from German history, which was a matter of course, if we consider the dissimilar historical conditions of France and Germany.